

등록번호 서울다-10691
 등록연월일 포덕 154(2013)년 8월 7일
 서울 중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화관 9층
 전화:02-735-3296 / 02-732-3956
 FAX:02-725-7718
 http://www.chondogyo.or.kr
 구독료:1부 1,300원, 연간 30,000원

천도교신문

제192호(통권587호) 포덕 163(2022)년 4월 22일(금요일)
 발행인: 박상종 / 편집인 겸 주간: 주용덕 / 인쇄인: 윤병업 / 발행소: 천도교중앙총부



중앙총부 신임 집행부 봉고식 봉행

- 4월 14일 (목), 경주 용담정에서 박상종 교령 등



중앙총부는 4월 14일(목) 오후 1시 경주 용담정에서 박상종 교령을 비롯한 신임 총부 집행부 등 임원과 교인들은 신임 집행부 봉고식을 봉행하였다. 이미애 교화관장의 집례로 진행된 봉고식은 의식에 이어 박상종 교령의 봉고문 낭독이 있었다. 이날 봉고식에서는 박상종 교령이 최상락 용담수도원장, 박충남 의창수도원장,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이상면 중학대학원장에게 도첩

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주용덕 총무원장은 신순재 동학혁명기념관 전시설장, 김명숙 관리인(용담수도원), 이오도 관리인(의창수도원)에게 각각 도첩을 수여하였다. 봉고식 후 대신사 태묘와 사모님, 두 아드님, 대신사 어머님 묘소와 생가를 참례하였다.

박상종 교령은 봉고문을 통해 “지난 3월 17일 교령으로 선출되었음을 한울님과 스승님 앞에 삼가 받

들어 고하며, 주어진 직책을 천명으로 여기며 오로지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소임을 다하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히 정진하겠습니다”고 다짐하고, “사람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세상이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밝음에서 새로움으로 변화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봉고식에는 박상종 교령을

비롯하여 이정희 연원회 의장, 김산·김성환 연원회 부의장, 주용덕 총무원장, 선우철수 종의원 의장, 최흥규 종의원 부의장, 오탈승 유지재단 이사장, 이미애 교화/사회문화관장, 정갑선 교무/경리관장, 문범식 전서실장, 최상락 용담수도원장, 박충남 의창수도원장, 이상면 중학대학원장,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박정재 여성회장 등 30여 명의 교역자가 참석하였다.



“참신한 수련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광암 박상종 천도교 교령 취임 인터뷰



3월21일 강남교구 시일식

광암 박상종 도훈이 지난 4월 5일 중앙대교당에서 교령에 취임했다. 박 교령은 3월 17일 열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교령으로 당선되었다. 박 교령은 남해군 설천면 정태마을 출신으로 가천대 교수, 서울디자인직업전문학교 학장, 재경설천면향우회 회장, 백야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냈다. 포덕 151년(2010) 제9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무궁화근장을 받았다. 박 교령은 3년 전 봄 ‘동학인내천포럼’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천도교의 역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천도교가 아니었다면 한민족의 정체성은 심히 손상되었을 것이다. 동학혁명의 주체세력이 바로 천도교다. 동학혁명이 성공했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했을 것이고 6.25동란도 없었을 것이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천도교인이 15명일 정도로 일제 36년 동안 천도교가 주도세력으로 활약했는데, 우리 근대사에서 천도교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아쉽다.”

교단 화합과 지방교구 활성화 등으로 천도교가 다시 도약하여 우리 사회를 이끄는 주도세력이 되고, 또 이를 계기로 과거 천도교의 활동 역시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4월 13일 박상종 교령과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만물을 위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가는 삶, 지구를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겪어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만물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만물을 공경하면 나도 살리고 자연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천도교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사회에서 맡아야 할 일입니다.

■ 교령으로써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교단은 무엇보다도 신앙 중심체제로 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과거 동학, 천도교가 세상에 커다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부조리한 세상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사께서는 도를 깨우치지 못하면 다시는 세상에 나설지 않겠다는 큰 결심으로 불출산외(不出山外)의 맹서를 하면서 무극대도는 시작되었습니다.

포덕 163년을 맞은 지금도 이러한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내에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참신한 수련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기사, 연원회를 중심으로 수련 지도, 교리 연구 등을 통해 포덕·교화를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원을 지원하고 용담수도원과 의창수도원은 항상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총부는 지방교구와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구장 중심제’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넷째, 교구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인근 교구 간 협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성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활발하게 생동하는 교단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위가 미덥지 못하면 아래가 의심하며, 위가 공경치 못하면 아래가 거만하니, 이런 일을 본다해도 책재원수 아닐런가” 하신 대신사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책재원수(責在元帥), 즉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새기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도록 성지우성 노력하겠습니다.

■ 교령이 계속 남해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남해 천도교를 빛내고 그 뿌리를 내리게 한 회암 하준천 선생의 공덕으로 1970년대에는 남해군이 천도교의 왕국이란 별칭이 있었습니다. 천도교세가 융성하여 천도교 교인이 많았던 때라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남해에서 교령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진 교령대행, 고정훈, 이철기, 박남수, 송범두, 현재 본인에 이르고 있습니다.(3면에 계속)



■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천도교의 위상을 더 높이는 사명감을 갖고 더욱 정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 천도교에는 어떻게 입도하셨습니까? 집안의 천도교 내력도 소개해 주십시오.

포덕 113년(1972) 4월 5일 천일기념일에 고(故) 고정훈 교령님의 포덕으로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4월 24일 내수도 심신당(故 고윤심 여사)과 결혼하면서 천도교 집안을 이루었고, 장남 박광일 내외, 장녀 박소영 내외, 막내 박광운 내외를 비롯한 아이들이 모두 천도교 신앙을 하는 도가완성을 이루었습니다.

■ 그동안 천도교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아오셨나요?

결혼과 함께 천도교와 인연을 맺었는데 장인어른이 고(故) 고정훈 중법사님입니다. 이 인연으로 천도교 한강교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교구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교구를 창설하였고, 천도교유지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천도교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현재 남정도 도훈을 맡고 있습니다.

■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천도교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활동으로 신앙사회를 구축하여 지상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건강과 덕업장생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 천도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려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시천주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번 천일기념사에서도 밝혔지만, 우리는 스승님께서 생명을 바쳐 지켜온 시천주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구는 온난화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온 지구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만을 위하는 삶에서

제1차 종의원 임시총회 개최

선우철수 의장, 최흥규 부의장 선출



종의원은 4월 8일(금) 중앙대교당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정갑선 교무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임시총회는 성원보고(재적 45명 중 34명 출석), 박상중 교령의 격려사에 이어 이용수 종의원을 임시의장, 서광우 종의원을 임시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임원 선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종의원 의장은 1차 투표에서 선우철수 종의원이 23표를 획득하여 선출되었다.(장효선 10표, 최흥규 1표) 이어 계속된 부의장은 1차 투표에서 최흥규 21표, 방상언 13표를 각각 획득함에 따라 2차 투표에서 최흥규 26표, 방상언 7표를 받음에 따라 최흥규 종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선우철수 의장은 사무장에 최용건 종의원을 지명하여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2면에 이어)

■ 천도교의 대중화 또는 교세 확장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방교구를 활성화해서 천도교 신앙의 종지인 인내천 사상을 포덕을 통하여 확산 시킴으로써 천도교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운동으로 교세를 활성화해나가고 지방교구 교세 확장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인 남해가 과거에 천도교 왕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곧 지방교구 활성화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남해의 사례가 서울과 각 지방에서도 이루어져 육적장생(肉的長生), 영적장생(靈的長生), 그리고 더 나아가 덕업장생(德業長生)이 이루어지는 사회, 즉 지상천국 건설이 하루바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천도교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진출처 남해신문

대회에서 교령 당선 시에 저는 '대화합의 교단 문화를 창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신사께서는 "남의 적은 허물을 내 마음에 논란하지 말고, 나의 적은 지혜를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함에 반드시 악을 숨기고 선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를 삼으라" 하시고 또 "사람을 대할 때에 욕을 참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스스로 자기 잘못을 책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을 주로 하고,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의암성사께서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큰 도를 반드시 얻으리니,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라. 내가 못 사람을 사랑하면 못 사람이 한울 길에 가서 영의 다리를 반드시 이룰 것이요, 못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울 길에 가서 영의 다리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체행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임기 동안 화합의 문화가 정착되는 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동귀일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설

모심으로 하나되는 교단을 이루자

지난 4월 1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사무식을 봉행하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첫 업무를 시작하였다. 새롭게 맞이하는 3년은 지난날을 거울삼아 한울 마음과 성품을 온전히 회복하여 교단 혁신을 위한 방향성을 올바르게 형성해 화합하는 교단으로 꾸려나가려 한다.

또한, 새 집행부는 교역자로서 사람을 만나면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한울님을 비는 듯 몸을 낮추어 경문·경청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겠다. 그럼으로써 교심(敎心)과 하나 되어 안으로는 동귀일체(同歸一體)가 되고, 세심(世心)과 하나 되어 밖으로는 여세동귀(與世同歸)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총부가 잘 운영되고 교단이 반석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짐으로 새 집행부의 역할과 꿈을 더해 나가자 한다. 첫째,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모인다'라는 스승님 말씀처럼 교인들이 서로 힘을 모아 화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둘째, 현기사 기능을 강화하여 수련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고, 한울님 마음을 회복하여 포덕·교화 활동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

하고, 권역별 대교구장을 선임해 총부와 지방 교구가 소통하는 교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넷째, 중앙총부와 지방교구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총부에 대한 믿음이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믿음을 통한 헌신과 봉사 정신으로 중앙총부의 기능을 쇄신(刷新)하여 올바르게 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한다. 다 함께 떨어져 일어나 교단 중흥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각자위심(各自爲心)을 없애고 근본을 투철히 깨달아 한울님 은혜를 잊지 않고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주인이 되어 교단을 쇄신해 나가는 데 성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천도교인답게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감사할 줄 알면 공경심도 생기고 겸손함도 생겨난다.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도 넓은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고, 격려하며 서로 간의 갈등 폭을 줄이고, 상호 관용으로 소통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인여천의 정신을 되살려 서로 화합을 이루고 '모심으로 하나 되는' 교단이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천도교유지재단 이사회 열려

오태승 이사장 선출



유지재단은 4월 12일 오후 2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태승 유지재단 이사장을 선출하였다.천도교 유지재단 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오태승 김진영 성강현 신명식 주용덕 김삼 김성환 선우철수 최흥규



4월 13일, 기재부 안도걸 차관 교령사 예방, 정부현안 등 설명

제암·고주리 학살 103주년 추모제 열려

4월 15일, 경기3.1운동기념사업회 등 참가



천도교 경기지역 6개 교구(성남·송탄·수원·시흥·인천·용인추위)와 경기3.1운동기념사업회(상임대표 장구갑)는 4월 15일 화성시가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에서 주관하는 제103주년 화성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에 참여하였다.

이날 추모 행사는 '제암·고주리 29인의 동행'이란 주제로 헌화와 참배, 주제 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3.1운동기념사업회는 추모제를 마친 후 제암리 순국 23인 묘역과 고주리 순국 6인 묘역에서 참례식을 봉행하였다.

제암·고주리 학살은 포덕 60년(1919) 화성 주민 2,500여 명이 대규모 만세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주재소를 공격해 일본 순사 1명을 처단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가 군대를 투입해 제암리 마을 주민 23명, 독립운동가 김홍렬과 그 일가족 6명 등 29명을 처참히 학살한 사건이다.

화성시는 추모제를 시작으로 16일부터 30일까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시민참여 카테고리에 '화성 4.15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여,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순국선열 29인에게 헌화 및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게 하였다.

경기3.1운동기념사업회는 『경기3.1운동 제7호』 '제암

고주리의 역사와 기억'을 펴냈다. 이 책에는 발간사, 축사, 특집 논문, 미래의 창(우리가 기억하는 제암리), 기획논단, 휘보가 실려있다. 기획논단의 일부를 소개한다.

화성독립운동의 핵심인물 김홍렬, 김성렬 선생
- 신태섭_경기3.1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고주리는 국내 3.1만세운동의 대표적인 유적인 화성시 제암리의 바로 옆동네이다. 김홍렬 선생의 생가는 고주리 마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김홍렬 선생이 만이시고, 성렬 선생이 둘째, 세열 선생이 막내셨다. 1870년 생이신 김홍렬 선생은 24살 때에 마을사람들과 함께 고석주 수원점주의 휘하에서 동학혁명군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동학혁명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천덕산에서 은거하다였다고 한다. 천덕산은 마을 사람들이 칩굴산 또는 돌팍산이라고 불렀는데 김홍렬 선생이 산정상 아래 토굴에서 49일 기도를 했던 곳이고 천덕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현재의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는 수원대교구와 남양교구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1911년 성미 납부실적이 남양교구가 전국 1등, 수원교구가 전국 2등을 기록할 정도였다. 고주리의 김홍렬 형제분들 또한 가산을 털어서 독립운동 자금 마련에 나섰다. 1918년에는 대교당 건축성

금 명목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할 때 김홍렬은 자신의 논 3천 평과 밭 3천 평을 중앙총부에 헌납했다. 외동딸 김철화는 4대 대도주 박인호 선생의 며느리(박래철의 부인)로 출가하였다.

수원지역의 천도교는 신앙운동이자 자주적 상향식 근대화 운동으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 주고 있다. 수원 지역에는 수춘리의 백낙렬은 삼피지역의 포교책임자였고, 김성렬은 팔탄면 고주리에서 포교하였고, 이병기는 팔탄면 노하리에서 포교하였다. 수원대교구, 남양교구 외에도 수원지역에서는 주요 리 단위에서 전교실을 운영하였다. 매주 일요일에 각 전교실에서 시일식을 거행하고, 매월 말이 되면 교구에서 합동 시일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또 1908년 교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강습소를 설치하였는데 수원지역에만 7개의 교리강습소가 운영되었다. 공향면 제암리에도 교리강습소가 운영되어 인근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근대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천도교 교리와 아울러 정치, 지리, 산술, 국어, 수신 등 근대적인 지식과 교양을 가르쳤다. 수원지역 교리강습소 수강생 중 안종환, 이병헌, 기봉규, 김인태, 우종열 등은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중앙총부가 북한산에 봉황각을 짓고, 전국의 주요간부들을 소집하여 49일 연성수련회를 할



제103주년 화성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때 김홍렬 선생은 덕다리 김창식과 함께 1914년 7회 기도회에 참가하였다.

3.1운동 개시 후 김홍렬 선생과 형제분들의 활약상

수원군과 남양군의 천도교 교구의 교세가 왕성했고, 활발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고주리의 김홍렬 김성렬 김세열 형제분들은 천도교인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신망이 높기때문에 일제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둘째였던 김성렬 선생도 열성적으로 천도교 활동은 물론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성렬 선생은 제암리 감리교인 안중후 선생과 대한제국시기 군인이었고 군대해산을 당하자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치루고 고향에 돌아와 후학들을 가르쳤던 홍원식 선생과 함께 '구국동지회'를 결성하여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천도교 수원대교구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지속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발안, 팔탄 지역과 삼괴반도(장안면, 우정면)에서는 각 지역에 맞게 조직적인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3월 31일 발안 장날에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다음날 4월 1일 저녁 7시에 일제히 횃불시위(봉화)가 시작되어 팔탄, 향남, 삼괴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이 되었다. 횃불시위는 4월 1일 밤 7시 수촌리 개죽산의 봉화를 시작으로 일제히 시작되었다. 봉화는 곧 이어 조암 쌍봉산, 팔탄의 천덕산, 향남면 가재리 당재봉, 장안면 석포리 무봉산, 어은리 남산, 우정면 덕목리 보금산, 장작터 봉화산, 운평리 성신재, 고은리 원원대 등 높은 산마다 치솟아 올랐고, 계속해서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동시에 사방에서 "조선독립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이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팔탄면 고주리 현병기(1976년 당시94세) 옴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높은 산들이 봉화의 불길로 꽃밭을 이룰 때 목이 터지라 외치는 독립만세 소리에 산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그 절규는 함정에 빠진 맹수가 구원을 요청하는 처절한 울부짖음 같았다."고 술회했다.

일제의 보복과 의연한 순국

4월 5일 발안 장날 만세시위와 투석전이 전개되었고, 9일에 일본군경은 고주리를 급습하여 주민들을 체포해 갔다. 그러나 김홍렬 선생은 조카 김주업과 함께 결혼 문제로 남양으로 가 있어서 일단은 체포를 면했다. 그러나 결혼한 지 3일되던 15일에 새신랑 김주업은 새색시 한씨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학살당하는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일제의 보복인 것을 알고 고주리 주민들은 모두 산으로 피신하였는데, 김홍렬 선생의 일가족은 새색시가 시집온 일로 일가족이 모여 조출한 잔치를 치르고 있었고, '그놈들도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을 저희 마음대로 죽이진 못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식구들은 피신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남아 있었다.

앞잡이 조희창과 일본군은 삼괴지역의 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수촌리의 백낙렬 선생을 지목하고 현상금 200원을 걸고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었다. 일본군과 그 앞잡이들은 이미 수촌리를 네 차례나 짓밟아 놓고, 마을 사람들을 죄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서도 삼괴지역의 지도자 백낙렬 선생을 못 잡아서 독이 바짝 올랐던 것이다.

김홍렬 선생과 백낙렬 선생이 동학혁명 시절부터 동지였고, 3.1운동의 주동자인 것을 아는 일본군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완강하게 계속되는 독립만세운동을 제압함과 동시에 백낙렬 선생을 잡지 못한 화풀이를 하듯이 피 맛을 본 미친개처럼 또다시 고주리의 6인 열사를 도륙하고 말았다. 살육한 이후는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6인 열사의 시신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타 버렸고, 일본군의 엄포로 3일 이후에야 겨우 시신을 수

습하여 덕우리에 안장할 수 있었다.

증언에 의하면, 김홍렬, 김성렬, 김세열 세분의 시신은 하도 많이 타서 몇 줌의 재로 변했고, 나머지 김주업, 김주남, 김홍복 세 분의 시신도 누가 누구의 것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서 세 개의 분묘에 나누어 모셨다고 한다. 당시 손수 시체를 거둔 김시열 옴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토막토막 난도질을 한 후 불을 놓아 시체를 구별할 수 없게끔 만든 왜놈들의 만행에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그 광경을 생각하면 현기증이 납니다."

시집온 지 3일 만에 참변을 맞이한 김주업의 새색시 한씨는 그날로 자리에 누워 3일만에 죽었고, 할아버지 김충식 선생도 화병으로 곧 돌아가시니, 김홍렬 선생 일가는 실상 8명이 몰살되고 만 것이다. 고주리 김성렬 선생의 둘째 딸인 김금화는 16세에 제암리의 안명순과 결혼하였고, 결혼한 지 6년 만에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남편 형제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참변을 당하였다. 제암리 유족 김금화를 중심으로 보면, 친정아버지 고주리 김성렬, 시할아버지 안정옥, 시아버지 안중엽, 남편 안명순, 시동생 안관순의 시가 친가 합쳐서 모두 10명의 일가족이 학살당한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남겨진 가족의 수난사

김홍렬 선생의 일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자분들과 남자로서는 형제분들 중의 막내이신 김세열 선생의 아들 김원기(당시 나이 13세)와 김성렬 선생의 막내 아들 김덕기(당시 나이 9세)가 겨우 살아남았다. 김원기 선생은 부인 유순남씨와 16살에 결혼하여 슬하에 2남 3녀[김종택(1930년생), 종택(1932년생), 종금(1935년생), 종성(1938년생), 종복(1942년생)]의 자손을 두었다. 김원기 선생은 어머니와 부인과 함께 어린 나이부터 나무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을 정도로 힘들게 사시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맏아들 김종택 선생은 일찍부터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며 평생 농사만 짓고 사셨지만, 필체가 워낙 좋아서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상량문이나 관보(관에 뒀는 보자기)를 쓸 때면 찾아와 모셔갔다고 한다.

김원기 선생의 손자 김연목 선생이 중학교 시절인 1970년대에 부산 동천고 교사를 지냈던 천도교인 김선진 선생이 찾아왔다. 김선진 선생은 삼괴지역과 팔탄 발안 지역의 고로들을 찾아다니며 3.1 운동에 대한 증언을 채록하였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덕우리에 매장된, 월문리 공동묘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6인열사 묘소를 찾아내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천도교를 믿는 마을 분들이 계셔서 김선진 선생이 오시면 함께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작은아버지 김종택 선생은 <제암29선열유족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셨다. 함께 활동했던 유족회 회장은 제암리 순국열사이신 안상용 선생의 아들이신 안동헌 씨가 맡으셨다고 한다. 유족회에서는 사당 건립을 추진했고 국무총리가 방문하고 범국민모금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사당 건립이 중간에 멈추게 되어 안동헌 회장과 함께 사무국장인 김종택 선생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잠깐 구속도 되었다가 땅 500평을 팔아서 마무리했다고 한다. 김종택 선생이 1959년도에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낸 진정서 초안이 제암리순국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필체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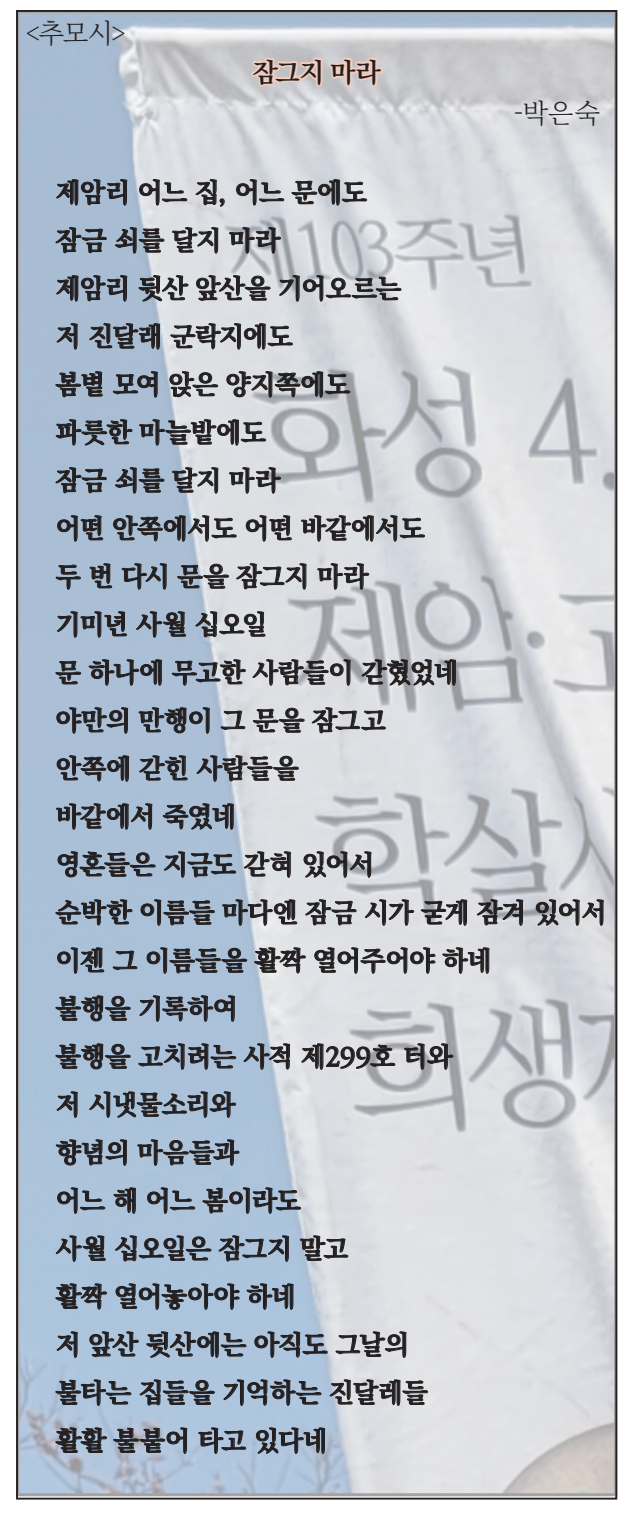
고주리의 김연목 선생의 댁에는 김홍렬 선생과 김성렬 선생의 생전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사연을 물으니, 독립운동 순국열사들의 당시 사진은 없으나 후손들의 사진 여러 개를 모아서 추정하여 그려준 것이라고 한다. 김홍렬 선생과 김성렬 선생의 모습에서는 김

연목 선생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모습이 완연히 들어 계셨다.

고주리 일가족 몰살이라는 참혹한 학살의 참상이 상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일본제국주의는 조직적으로 그 흔적을 지우려고 기도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 팔탄면에서 호적부를 찾아보니 순국열사의 호적은 철저히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후손들은 하는 수없이 열사들의 이름을 새로 만들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고주리 6인의 순국열사는 덕우리 공동묘지의 애기무덤에 초라한 비석으로 남겨져 있고, 마을에는 제대로 된 현충시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마을 정류장에 작은 표지석이 있을 뿐이다. 순국선열을 선양하는 데는 활동의 높고 낮음이 있을 리 없지만은 비할 바 없이 초라한 상황에서 제암리 고주리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는 제대로 되고있는 것인지? 역사는 제대로 기억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양은 평등하게 하되, 순국열사들이 활동했던 노력은 올바르게 밝혀지고 알려져야만 당시에 치열하게 활동했던 선조들의 열이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다. 굴곡진 현대사의 한계를 관공서의 뒤편으로만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기억과 선양은 생존과 물질적인 성장을 핑계로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역사와 문화를 가진 세계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기 위해서 순국선열들의 넋을 되살려야만 한다. ☺



온라인 어린이 시일식 참여자 늘어

시일식 후에는 동경대전 한자쓰기 등 진행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어린이 시일식에 참여자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3일, 4월 10일 어린이 시일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교화관의 관심과 지원으로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3월 13일 어린이 시일식은 영등포교구 전형우 어린이가 집례를 맡고, 대동교구 고대경 어린이가 해월신사법설 '강서'를 봉독하였다. 집례자는 시일식 일찍부터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고, 경전 봉독자는 긴 페이지의 경전을 차근차근 공경하여 읽는 모습이였다. 설교시간에는 3월 넷째주 어린이시일보에 실린 중앙 라명재 선생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울마음을 가지고 오관을 실천하는 천도교인의 모습에 관하여 어린 한울님들과 이야기 나누었다.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에서 편집한 '개벽청년 노래모음집'에 실린 '달님 마음 한울님 마음'이라는 노래도 천덕송으로 함께 불렀다. 시일식 후 재미난 노작활동으로는 한자놀이 시간을 가졌다. 천도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인 '인내 천'과 '사인여천' 한자에 대한 뜻풀이, 한자 생성과정 등을 낙안회 연화당 김순연 선생님께서 재미나게 설명해주셨다. 아이들에게 한자쓰기가 어려운 활동으로 인지되어, 천도교의 기본 가르침마저 지루하게 생각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던 연화당 선생님의 노력 덕분이었는지, 아이들은 한자놀이 시간에 즐거운 반응이었다. 손을 들어 한자 쓰는 순서를 따라 하고, 정성스레 쓰고 난 글자들을 들어 보이며 숨쉴 틈을 뿔냈다.

4월 10일 온라인 어린이 시일식은 수운회관 5층 방정환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서울교구 강혜승 어린이가 집

례를 맡고, 삼천포교구 이진옥 어린이가 '동경대전 탄도유심급'을 봉독하였다. 온라인 시일식의 집례 경험이 여러 번인 강혜승 어린이의 집례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온라인 시일식의 경전봉독이 처음이라는 이진옥 어린이는 여러 번 연습한 듯 매우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설교 시간에는 4월 어린이 시일보에 실린 중앙 라명재 선생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울님을 내 몸 안에 모셨으니 언제 어디서나 매마사사 심고할 수 있는 천도교의 기도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장소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정성으로 심고드리는 어린이 한울님들의 모습을 각 가정에서는 더욱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일식 후 재미난 노작활동으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 때문에 생태계와 자연 한울을 온통 사람들의 쓰레기로 더럽히고 그 피해를 동물들과 더 나아가서는 다시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는 생태순환의 이치를 설명하였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활용하여 방향제 만들기를 하였다. 한참 만들기를 진행하였는데, 어린이 한울님들은 선생님들이 준비한 방향제보다 더욱 이쁜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다. 또 자신이 속한 교구에 선물하겠다고 여러 개를 만든 어린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어린이시일식마다 담당 선생님들은 어린 한울님에게 크게 배운다. 전국 어린이들의 매달 정기적인 만남이, 어린 한울님들의 시천주를 깨닫고 양천주를 실행하는 한울사업으로 꾸준히 발전하길 심고 드린다. (글.사진/이윤정)

연원회 정원포, 득암 이상선 도정 추대

4월 17일, 영등포교구에서

천도교연원회 정원포(도정 박만해)는 4월 17일 영등포교구에서 정원포 원직자회의를 개최하여 득암 이상선(71세) 동덕을 새 도정으로 추대하였다. 이날 도정으로 추대된 이상선 동덕은 "더욱 더 용맹정진 수도하는 정원포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면서 "어려운 시기인지만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상선 동덕은 도



훈, 영등포교구장, 총무위원, 종의원, 유지재단이사장 등의 원·주직 경력이 있다.

서울교구 창립 제112주년 기념식 개최

4월 17일, '서울교구의 날' 행사



서울교구(교구장 윤태원)는 창립 112주년을 맞이하여 4월 17일 시일식 후 '서울교구의 날' 행사를 중앙대교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윤태원 교구장은 천도교중앙대교당 보전·관리에 공로가 많은 2명(소암 김경규, 김정숙)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서울교구의 기원은 포덕 47년(1906) 설치된 '한성대교구'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서울교구의 설립 연도는 포덕 51년(1910)4월 21일 "한성 내에 교구를 설립"이라 명시한 천도교 총령에 의거, 2011년 2월 서울교구 설립일을 4월 21일로 서울교구 회의에서 확정하였다.

포덕 51년(1910) 4월 21일 한성교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5월에 관훈동의 이교홍의 집에 한성교구실을 정하고 교인을 모집하였다. 그후 포덕 52년(1911) 2월 전동(조계사 부근)에 교구실을 마련하였고, 포덕 57년(1916) 11월 교구실이 좁아 송현동 중앙총부 뒷집으로 이전하였다. 포덕 62년(1921) 2월 신축된 중앙총부 건물로 개벽사와 함께 경운동으로 이전하였다. 초대교구장은 최영찬이었고 이후 장기렴, 최영구, 장효근 등이 교구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휘암 윤태원 교구장이 서울교구를 이끌고 있다.

부산시교구 여성회, 울진 산불피해 복구 지원 성금 전달

회원모금 3백만원, 자매도시 부산 동구를 통해



부산시교구 여성회(회장 강선순)는 4월 12일, 울진군의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300만 원을 울진군의 자매도시인 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에 전달했다. 자매도시 주민들의 따뜻한 정이 담긴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로 기탁되어 산불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울진군을 위해 귀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강북구 청소년 희망원정대 의암성사 묘소 탐방

4월 9일, 8개조 250여 명



강북구 청소년 희망원정대는 4월 9일 우이동 의암성사 묘소를 참배했다. 이날 강북구가 주관한 4·19 민주혁명 기념행사에 참가한 희망원정대는 기념식을 마친 후 임흥길 대장과 8개조 250여 명은 4·19민주묘지를 출발하여 의암 순병

희 성사 묘소를 참배하였다.

참배식에서 박충남 의창수도원장은 올해가 의암성사 순국 100주년임을 알리고 봉황각과 의암성사 묘소에 대하여 해설하였다.(글.사진/박충남)

<社告>

1. 1면 활자를 크게 제작하였습니다. 다음호부터는 전체 기사를 큰활자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2. 천도교신문 제191호(4월 8일자) 5면 '제21차 천도교여성회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기사가 편집 착오로 중첩 기재되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이정문의원

국회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독립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월 12일 공동발의(대표발의: 이정문 천안시)하였다. 2004년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정(163인 공동발의)으로도 2차 동학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었고, 지난해는 성일중 의원이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37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시 뜻을 모은 바 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제정되고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의 필요성이 국회 내에서도 여러 차례 공론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국권침탈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고자 일제의 총칼에 맞서 투쟁 하신 독립유공자"라며,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서훈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항일운동을 전개하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 유공자 서훈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발의의원은 이정문, 강민정, 강준현, 김교홍, 김두관, 김민철, 김병기, 김성주, 김원익, 김윤덕, 김철민, 김홍걸, 남인순, 노용래, 도중환,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용진, 박정, 배진교,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성일중, 송갑석,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양정숙,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재갑, 윤준병, 이동주, 이명수, 이병훈,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학영,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장혜영, 전주혜, 정성호, 정춘숙, 최강욱, 최기상, 홍문표, 홍성국 등이다.

그리고 주영채 동학혁명유족회장, 박용규 2차동학서훈국민연대대표 등은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직접 방문, 통화 등으로 이번 독립유공자예우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4월 18일 김만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차동학 참여자에 대한 서훈 촉구 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종학대학원 총동문회장에 운암 변종제 동덕 추대

400명 동문회원, 현 신인간사 대표



천도교 종학대학원 총동문회는 지난 4월 13일 오후 4시 종학대학원 307호 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제18대 총동문회장으로 운암 변종제 동덕을 선출했다.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총동문회 임원진 인선 안전과 관련 신입 회장에게 일임하여, 조만간 제18대 총동문회를 이끌어갈 집행부가 구성될 예정이다.

변종제 총동문회장은 종학대학원을 독립기구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종학대학원의 ▲장소 변경 불가 ▲제대로 된 강의실 구축 ▲영상을 통한 사이버 강의 시스템 구축 등 여러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입교식>

서울교구 김영희 동덕 입교식
박범용(부암 박부섭 선도사, 성수당 박징재 여성회본부 회장 차남) 동덕의 배우자 김영희 동덕이 지난 4월 3일(시일) 서울교구 성화실에서 입교식을 병행하였다.

<환원 소식>

- ▶정허당 장삼례 선도사 환원(부안교구 박정태 동덕의 모친)
환원일: 포덕 163년 4월 10일
- ▶향심당 정필남 선도사 환원(서운포, 향년 95세. 고 은암 류윤근 선도사 모친)
환원일: 4월 12일(화) 오후
장지: 향암 류태홍 종법사 묘역(전북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상주: 류형광(손자) / 지운당 최선옥(며느리)

어린이날 제정100주년 기념사업 안내 및 성금 모금



천도교청년회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중앙총부의 지원으로 천도교 어린이날제정100주년기념사업회(위원장 총무원장 주용덕)의 간사단체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성공적인 어린이날 100주년 행사 개최를 위해 천도교청년회는 성금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성금은 어린이날 행사 진행에 사용된다.

▶ 성금계좌: 우리은행 1005-600-941853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 참여문의
청년회장 이재선 010-6644-1236/ 사무국장 변은수 010-7172-5660

※ 어린이날 기념행사 안내

1. 전야제: <4월 그림날 밤>
 - 4월 30일(토) 오후 7시 30분, 천도교중앙대교당
 - 한정된 인원으로 초대장을 가지고 오신 분만 입장가능합니다. 문의: 천도교청년회
2. 기념행사<모도가 봄이다>
 - 어린이100명을 선발하여 100년전 어린이날 재현행진
 - 기념식 및 재현행진: 5월 1일, 오전 11시, 당주동 소파생가(세종문화회관 뒤편)→종로→3.1로→인사동길→천도교중앙대교당
 - 행진환영 및 비전선포: 오후 12시30분, 천도교중앙대교당 앞마당
 - 참가혜택: 기념티셔츠, 사랑의선물꾸러미
 - 참가신청: <https://forms.gle/QpdDvXz9JZkWFQM39>
3. 어린이도서전시회: 5월 5일~26일, 천도교중앙대교당
 - 주관: 어린이도서연구회
 - 후원: 천도교중앙총부
4. 경주 어린이날 기념행사: 5월 5일 11시, 용담정
 - 공동주최: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 방정환배움공동체'구름달'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 총회 개최

박차귀 회장 등에 감사패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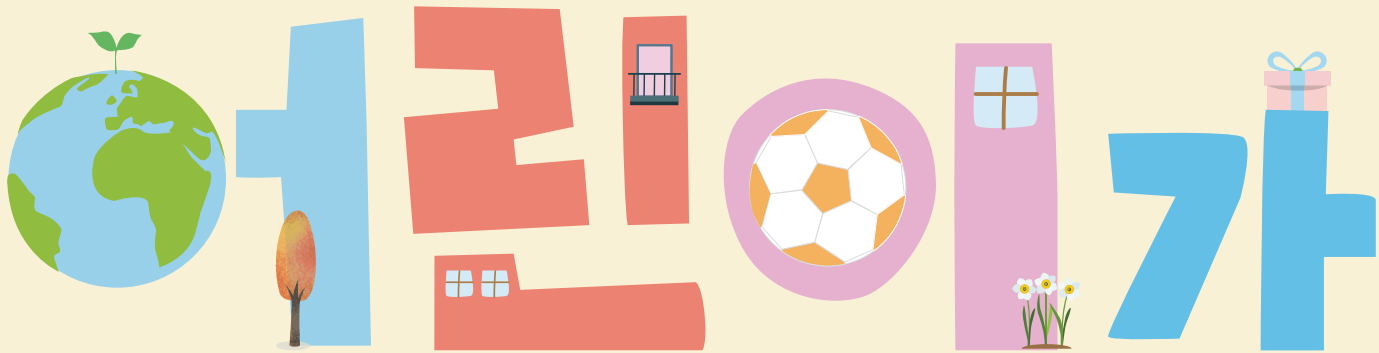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한사평: 답게살기운동본부)는 지난 4월 14일 오후 4시 서울 안국동 불교신도회중앙본부 회관 3층 사무실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한사평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회 임기를 마치는 박차귀 여성회중앙본부 회장과 손병선 대표회장, 최경호 사무총장에게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는 불교 측에서 대표회장(주윤식)을 맡았고, 각 종단 이사들은 공동회장을 맡았으며 운영위원은 각 종단에서 2명씩을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사평은 7대종단(천도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주교, 민족종교협의회) 평신도가 참여하여 2018년 3월 7일 창립하여 코로나19 기간에도 꾸준히 활동하였고, 천도교 여성회중앙본부에서도 사명감과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모든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여왔다. (글:사진/박차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



2022.04.30 오후 7시 30분
기념 축하 공연 <4월 그믐날 밤>

2022.05.01 오전 11시~오후 1시
기념식 및 행진 <모도가 봄이다>